

朝鮮儒林에게 告함 (一)

저자 미상

儒者는 需也 | 니 需世需用을 謂함이라. 故로 其心을 問호면 仁義禮智 孝悌忠信이요, 其道를 問호면 格致誠正 修齊治平이요, 其書를 問호면 詩書易禮春秋, 其學을 問호면 禮樂射御書數오, 其功을 問호면 正德 利用厚生이라. 故로 儒之爲儒가 四民 卽 士農工商의 首位를 占領호야 一國人 全社會에 特殊的 待遇를 受호고 高尚的 模範을 傳호나니, 此가 엇지 章甫其冠하며 縫掖其衣호야 威儀動作의 □々不可選호는 外觀的 形容을 取호야 如此호는 地位로 尊奉호는 意義를 表示함이리오. 是는 其人의 素養이 足히 利人澤物호며 救世匡時호는 材料를 其身에 備호는 故이니, 不然호면 耳目口鼻와 手足運動이 同一호는 人으로서 儒者에게 向호야 如此호는 □拜호는 理由는 無호는즉, 儒者되야셔는 何事業을 做得호며 何功績을 成就호야 能히 社會群衆의 仰望期待心을 萬一報答호리오.

大抵 儒者의 幼小時로부터 書를 讀호며 成長期에 至호야 行을 修함은 其 經綸排鋪가 極히 博大宏遠호야 宇宙間 萬事萬物이 自己當行 範圍에 屬지 안인者 | 無호야, 生民의 塗炭을 拯救호며 大道의 榛莽을 恢拓호야 人民으로 호야금 春臺玉燭 太和之域에 歌詠케 호며, 國家로 호야금 泰山盤石 至安之地에 措置케 호야 一日이라도 天下의 治亂興衰를 懷抱에 忘却지 안이호며 等棄치 안이 호나니, 若不然호면 是는 楚狂接輿 長沮桀溺 荷簣丈人之 枯槁沈淪호야 果於忘世호는 者 等 獨善主義니, 此를 엇지 儒者의 本領이라 稱호리오. 儒者의 本領을 願聞코져 호진디 余가 一言을 敢陳호리라.

儒者의 萬世尊崇호야 天地와 如히 信賴호며 日月과 如히 瞻仰호야 賢於堯舜이라 生民以來 未有盛也라 云호야, 更히 比倫을 得지 못호는 一個 聖人이 엇지 孔子가 안이시리오. 그러나 孔子게오셔 春秋 尙霸의 世를 遭遇호사 列國君主가 仁義를 後호고 功利를 先호며 大夫 | 世權호고 陪臣이 執命호야, 政治의 紊亂함이 亂繩과 如호며 人民의 困苦함이 倒懸과 如호야, 貪官汚吏와 亂臣賊子 | 竊權僭位호야 名分이 倒喪호고 紀綱이 大壞호야, 中國이 夷狄化호며 人類가 禽獸變호는 時代를 作호얏스니, 其時代의 政治行動과 人民風化

를 統而言之하면 可謂 大亂이 極矣라. 然而孔子는 獨善主義를 拋棄하사 如何히 하면 此를 矯正할식 如何히 하면 此를 救濟할식 夙夜思量하사 適齊適衛 하시며, 圍於宋 厄於陳蔡하사 車轍이 天下에 遍하며 坐席이 暇煖키 不能하섯스니, 由此言之면 孔子가 何嘗 狹隘主義를 主張하야 曰 此時는 不可爲之時라 此人은 不可與有爲之人이라 區畫自止하야, 行道홀 思想을 自遏自沮홀 事가 有하리오. 故로 曰不曰白乎아 涅而不緇니라 不曰堅乎아 磨而不磷이라 하며, 又曰 吾豈匏瓜也哉라 焉能繫而不食이리오 하섯스니, 此로써 孔子의 平生所志를 可以推知홀 것이로다.

그러나 我朝鮮의 近來 儒者는 論語를 讀호되 活文字로 讀지 못하고 死文字로 讀호얏도다. 何以證其然고? 論語 全部의 主腦는 一箇 仁字 範圍에 不出하얏는디 今之儒者는 仁 一字의 文義를 能釋홀 者 幾人이 有호고? 假令 我가 今日에 仁字를 拈하야 儒先生을 向하야 問曰願聞其義하노라 하면, 彼將曰 仁은 至柔至順하며 極溫極和함이니 此가 卽 孔子의 太和元氣之象이며 溫良恭儉 申々々々の 形容이라 答言홀 자가 十之八九는 應然하리니 何況付 書堂에서 兒童을 教授하는 學究先生이야 更言홀 餘地가 豈有하리오. 然則其義如何오? 曰仁은 東에 位하며 春을 管하야 其氣는 發生을 主호고, 其性은 陽剛을 專하야 萬化의 樞機며 萬事의 根本이니, 엇지 柔懦巽軟하야 自立의 氣象이 無홀 者를 仁이라 謂하리오. 故로 孔子 司寇 三月에 少正卯를 戮하사 奸佞을 懲戒하신디 魯國이 大治하얏고, 夾谷에서 齊魯 兩君之好를 行홀식 按劍涉階하야 俳優를 斬하신디 齊人이 大懼하야 汶陽侵田을 返還하얏스니, 聖人의 行仁하신 功效가 如此 神速호지라, 由此觀之면 仁의 體用이 全部 剛健함이라. 故로 孔子 曰 有求生而害仁者하며 有殺身而成仁者라 하섯스니, 此는 剛猛호 자를 仁이라 稱함이 的確호도다.